



아주대학교

제13기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도전의 인문학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나를 돌아보는 공부이고,
나와 남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접어두었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함께 향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인문학의 놀라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 인문대학
AJOU UNIVERSITY | College of Humanities

■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최근 화두가 되는 공통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강좌로 운영됩니다.

2개 학기 매 학기별 13주간 진행되는 다채로운 강의는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인문경영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회적 리더로서 또한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고찰하는 과정은 자신을 성찰하고
가다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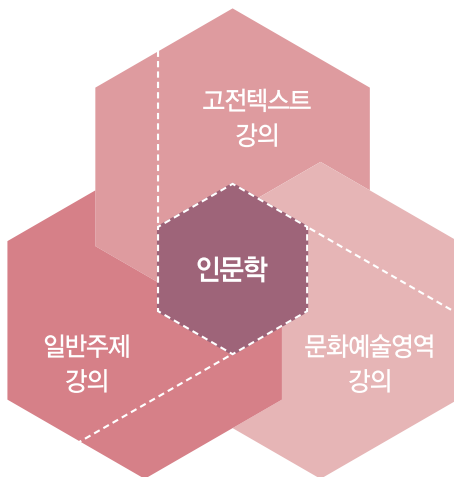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 과정은 자유로운 사유공간입니다. 이 사유는 나와 너·사회·자연을 포괄합니다.

사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인문학을 맛봄으로써 자유로운 영혼, 창조적인 정신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 계열의 다양한 강의 구성



전체 강의는 3개 계열,

즉 **인문고전을 읽고 탐구하는**

인문학 고전텍스트 강의,

흥미롭고 시의성 있는 특정 테마를 다루는

인문학 일반주제 강의,

문화와 예술분야의 감성과 전문지식을 익히는

문화예술영역 강의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주체적 학습과

테마별 심화교육, 문화적 감성교육의

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공통 테마가 있는 강의

각 기수별로 당대의 화두를 공통주제로 선정하여 강의를 운영한다. 2개 학기 매 학기별 13주 개별 주제들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강의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고 집중적인 교육효과를 도모한다. 이번 학기 강의의 공통주제는 ‘도전의 인문학’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현상을 고찰한다.

나를 찾는 고전텍스트 공부

동서양의 대표적 고전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갖는다. 고전을 직접 읽고 전문가의 지도 하에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고 논의한다. 인류의 보편적 지혜가 담긴 고전을 학습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반성적인 인문학 공부를 실천한다.

인문 경영능력 함양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인간과 문화에 대한 원천 지식을 함양하고 개인과 인간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인간적 감성과 창의적 상상력을 고취하며 사회적 리더로서의 품격과 역량을 고양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성찰과 자기계발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과정을 통해 모든 수강생들은 최고관리자가 갖춰야 할 인문경영능력을 갖추게 된다.

인사말



인문학아카데미 원장 박 만 규

“
창의력의 확보와
혁신의 실천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도전의 인문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삶의 수단에 대해 탐구하는 공학 등의 학문들과 달리, 인문학은 삶의 목적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삶,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 제기되는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인문학은 인간의 다양한 정신세계를 연구합니다. 그리하여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문학이 삶의 수단, 예컨대 산업이나 비즈니스의 수단으로도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문화산업의 비중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 콘텐츠는 인문학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다 영화 한 편이 더 수출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오래 전부터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는 창의력의 확보인데, 그 원동력을 바로 인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인문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논어 위정편은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리에 어둡고, 사색만하고 배우지 않으면 시야가 좁아져 학문이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조직의 관리와 비즈니스 창출에도 적용됩니다. 리더는 늘 생각에 골몰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시야가 좁아져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안 하면 사리에 어두워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즉 배우기만 하면 아는 것은 많아지지만 현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배움과 사색이 함께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담아내는 틀을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에서 제공합니다. 저희 인문학과정은 인문학의 여러 분야에 정통한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강의 평가를 토대로 수강생들이 뽑은 최고의 강사들을 초빙하였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보장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도전의 인문학’이라는 공통 주제 하에 제시되는 13주의 강의들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인간관계 설정의 원리와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방법을 깨우쳐 드리고 실천의 의지를 되살려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0년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료 원우 추천글



박용수

(1기, 아인회 총동문회장, 하이밸류컨설팅 대표)

인문학 고전은 오랜 연륜을 품고 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동양의 <논어>와 서양의 <일리아스> 같은 지혜의 보고를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에서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심도 있게 해설을 들으니, 수학을 전공한 본인의 입장에는 평소 어렵게만 여겨지던 인문고전이 어느 순간 기막히게 재미있어지고, 큰 깨달음에 도달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서 우리 두뇌에 깨달음이라는 큰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여러분께 꼭 추천 드립니다.



유희석

(1기,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저는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을 1기로 수료하였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인문학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진정한 존재가치는 인공지능을 뛰어 넘는 인문학과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가장 인간적인 의사일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인문학적 소양은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준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의 필수 덕목인 인문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미래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본 과정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득주

(3기, GC녹십자셀 대표)

인문학은 메마르고 단순하며 반복적인 나의 삶을 활기차고 생각이 깃든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인문학의 넓이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정택근

(3기, 9기 가온누리 대표이사)

인문학은 홀로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가야만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면서 정말 단순하지만 알아차리기 힘든 삶의 통찰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매시간 감동하는 수업을 들으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택화

(5기,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지혜보다 높은 것이 느끼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주대 최고 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저의 온 몸 가득 축수를 만들어 인생을 즐길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임남철

(2,3,4,5,6,12기, 지트에듀케이션 대표이사, 최다 기수 등록)

경영인으로서 변화를 추진할 때마다 찾아드는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이 인문학이었습니다. 삶에 있어서나 경영에 있어서나 벽에 부딪혔을 때 활로를 찾고자 하는 분에게 본 인문학과정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혜와 창의성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조명순

(7기, 엠에스티코리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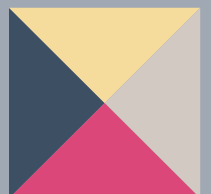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카피가 한때 유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 당신 인문학적 향유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누리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충열

(8기, 국민은행 본부장)

아주대 인문학과정을 통해 삶이 맛갈 나고 기쁨져 졌습니다. 풍요롭고 보람되게 될 '아인회'의 보금자리로 여러분을 추천합니다.





제13기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강의개요 및 강사약력

봄·학·기



| 제1강 | 갈등 해소 언어 - 인지과학적 접근



박만규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아주대학교 교수(불어불문학과), 인문학아카데미아 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위원
-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초대회장
- 한국사전학회 회장,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회장
- 프랑스 국립과학재단,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초빙연구원
- 제18차 세계언어학자대회(CIL) 출판위원장 (2008년)
- 상훈 : 프랑스정부 학술공로훈장 기사(Chevalier)장
- 저서 : 설득언어(베가북스, 2019.1.) 등

우리는 자녀, 배우자, 동료, 부하직원, 상사,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갈등은 한쪽이 욕망을 버림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컨대 상대가 억지를 부릴 때, 부하직원의 태도가 못마땅할 때, 권력을 더 가진 사람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상대가 부당한 부탁을 할 때, 불가피하게 우리는 비판도 하고 거절도하기를 원한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야단도 치기를 원한다.

요컨대 나의 욕구도 실현시키면서 상대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알아본다.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2강 |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위기 극복의 상상력



전형준

前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서울대 불문학 박사
-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홍익대학교 문과대 학장
- 한국문학 번역원 원장
- 세계 상상력 연구 센터(CRI) 한국 지회장 및 한국 상상학회 회장
- 저서 : 『실존주의 시대의 힘, 상상력』, 살림, 『프리메이슨』, 살림, 『상상력 혁명』, 『공자님의 상상력』 등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어른을 위한 동화로 많이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작품은 우리들의 잃어버린 동심을 언제나 자극하고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마력적인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잃어버린 동심을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의 화자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때 어린 왕자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 구해주세요요”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한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어린왕자는 과연 누구인가? 왜 하필 그때 나타났을까? 지구를 향한 어린왕자의 여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위기에 빠졌던 화자는 어떻게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어른을 위한 동화라면 읽었던 어린왕자는 사실은 삶에 대한 더 없이 소중한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 작품이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는 그 위기 극복의 방법을 몰라서 절망에 빠지기 쉽다. 위기에 빠졌을 때 절망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린 왕자>를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본다.

제3강 | 도전과 비전 - 성공하는 실패를 위하여



심영섭

한국 영상 응용 연구소 대표

- 고려대 심리학 박사
- 대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영화평론가, 심리학자, 상담가, 심영섭 아트테라피 대표
- 수상 : <씨네21> 평론상(1988)
- 저서 : 『영화 내 영혼의 순례』, 『심영섭의 시네마 싸이클로지』, 『대한민국에서 여성 평론가로 산다는 것』
- 역서 : 『시네마 테라피』, 『사진 치료 기법』, 『열정의 시선』

흔히 실패를 패배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비법으로 성공에 대한 지름길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윈스턴 처칠, 모차르트, 넬슨 만델라는 성공의 가도만을 달렸을까?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훗날을 도모한 역사적 인물들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성공하는 실패에 관한 영화를 통해, 도전과 비전의 정신을 복돋고, 더 높은 정신의 베이스 캠프를 치기 위한 마음의 탐험을 시작해 보자.

제4강 | 조선 영조~순조대의 궁중 연향문화



김영운

(재)국악방송 사장

- 서울대 국악과, 한양대 대학원 국악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 서경고등학교 교사, KBS 프로듀서, 강릉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양대 교수 역임
- 한국음악협회 감사, 한국국악학회·한국민요학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연구 분야 : 한국음악학(국악이론, 국악사, 민요학, 악기학, 기보법·아리랑·독서성 연구)
- 저서 : 『국악개론』(2015), 『경기도의 향토민요』(상, 하),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상, 중, 하) 등
- 수상 : 관재국악상(2008), 난계악학대상(2009), 옥관문화훈장(2018), 녹조근정훈장(2019)

조선 후기, 영조 시대의 궁중 연향문화를 통하여 건국 초기의 예약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통치자의 위기 극복 노력을 살펴보고, 이어서 개혁적인 통치이념이 반영된 정조대의 대표적인 궁중 연향인 ‘화성 봉수당 진찬’ 의례에 드러난 당대의 시대상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순조대 효명세자를 통한 궁중정제 창제와 민간 음악문화의 수용 등 조선 후기 문예증흥기의 궁중 연향에 반영된 시대상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

| 제5강 | 뛰어난 전문가 vs. 평범한 전문가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텍사스대학교 심리학 박사
- 아주대학교 입학사정센터장, 창의력 연구센터장, 삼성 HR 자문교수,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의료분쟁조정원 조정위원
- 연구분야 : 추론, 판단 및 의사결정, 창의성
- 저서 : 『이쯤지 말고 따르게 하라』 『지혜의 심리학』
- 역서 : 『혁신의 도구』

모든 교육의 목표는 전문인재 양성이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양성하고자 한다. 전문가란 무엇일까? 전문가가 왜 오히려 덜 창조적일까? 메타인지(meta-cognition)라고 하는 인간 고유의 속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메타인지를 통해 기존의 생각과 기술로부터 탈피해서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자.

- 메타인지란 무엇인가?
- 인간은 왜 메타인지를 지니게 되었는가?
- 메타인지, 양날의 칼. 고착과 창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 생각의 간격과 순서 그것이 문제다
-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 줘야 하는 이유
- 우리는 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해야 하는가?
- 결론: 능력보다 상황의 힘에 눈을 돌려라.

| 제6강 | 역사적으로 본 韓中日 삼국지



한명기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졸업, 同 대학원 문학박사
-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 계간『역사비평』편집위원, 제2기 韓日歴史共同研究委員會 위원 등 역임,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 EBS, SBS CNBC, jtb, 국가인재원, 국립외교원, 국회, 국립중앙박물관, 삼성전자, LG, 현대차, 카카오, POSCO, 고려대 최고위과정, 연세대 AMP, 서울대 IFP, SPARK, GLP, ISSP 등에서 인문학 강의
- 저서 : 『역사평설 병자호란』(2013, 푸른역사), 『임진왜란과 한중관계』(1999, 역사비평사), 『광해군』(2000, 역사비평사),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2009, 푸른역사) 등
- 수상 : 『임진왜란과 한중관계』로 제25회 월봉저작상, 『역사평설 병자호란 1, 2』로 제54회 한국출판문화상

중국의 부상으로 말미암은 美中 霸權競爭 속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는 격동하고 있다. 본 강의를 통해 이 같은 격동의 역사적 흐름과 본질을 과거 韓中日 삼국의 관계를 통해 고찰하고, 향후 우리가 직면할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제7강 | 조선의 건국과 정도전의 “도전”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
- 전 규장각 학예연구사, 현 건국대 사학과 교수
- KBS TV '역사저널 그날', KBS 1 라디오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신병주의 역사여행' 진행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연산군과 광해군, 왕과 아들 편 출연
- 저서 : 『왕으로 산다는 것』, 『참모로 산다는 것』, 『조선산책』, 『조선을 움직인 사건들』, 『조선평전』,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등
- 수상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최고 베스트 강사상(2018)

고려 말의 정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
신흥무장 세력의 중심 이성계와 신흥사대부의 중심 정도전의 결합
위화도 회군과 혁명의 길

정도전, 조선 건국의 마스터 플랜을 짜다
조선의 국호에 담긴 뜻과 한양 천도
왕권 중심주의와 재상 중심주의의 충돌

제8강 | 판결과 정의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아주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
- 대법관, 판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논쟁을 거쳐서 선고되는지, 대법관들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사회는 그 판결들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등을 실제의 판결 사례들을 가지고 살펴본다.

제9강 | Self-Awareness'의 이해와 활용



이성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한국NLP상담학회 이사장, 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성인교육학회 부회장, 한국교육건설학교청학회 수석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 고려대학교 교육학 박사
- 저서 : 어웨이크너, 낯선 길에서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성 인정형학습의 이해, 꼬끼리여 사실을 꿰어라 외 다수

자신을 정복하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도전은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변화의 시대에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 리더십. 그 리더십의 핵심은 신뢰이며, 신뢰는 성품과 역량이라는 핵심 축으로 구성된 신뢰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신뢰성은 '자기성찰'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된다. 이에 리더의 Self Awareness는 리더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리더십의 시작이자 모든이의 화두라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 화두에 성인교육학과 NLP분야의 뜨거운 화두인 Awareness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삶 속에서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나아가 리더의 의식화와 Spirituality 그리고 순수의식의 논의를 통해 자신의 가치, 신념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돌아보고 새롭게 정립해 본다.

제10강 | 마음의 풍경, 비움의 건축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 (전)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 (전)ICOMOS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전)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대표작 : 아모레퍼시픽 기업추모관('09), 국가영빈관 삼청장('10), 피츠버그대학교 한국실('15)
- 저서 : 한국의 건축-전통건축편, 공간사,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1, 2, 3, 한국건축개념사전 (공저),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1, 2, 컬러그라피

건축은 한 시대의 문화와 생각을 담는 그릇이며, 역사적 건축은 지면에 새겨진 당시의 정신들입니다. 과거의 건축을 읽는다는 것은 그 문화와 역사와 생각을 읽어가는 인문학적 작업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절집들은 인문학적 읽기의 가장 적합한 텍스트들입니다. 그 어떤 절집에서는 종교적 사유의 흔적을, 어떤 곳에서는 시대적 환경을, 또 어떤 곳에서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그 다양한 텍스트를 마음의 풍경으로 읽는 시간입니다.

| 제11강 | 나는 기생이 아니다 - 운명을 건 춘향의 외침 -



조광국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아주대학교 인문대학장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선시대 기녀제도와 기녀의 삶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기생의 딸이 기생이 되는 게 법-종모법-이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춘향이 어떻게 기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자신을 기생으로 대하려는 이몽룡에게는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고, 그렇지 않았던 변학도에는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의 풍속적인 차원에서는 기녀가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는 상황과 법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기녀가 천민 신분이었던 상황, 두 상황이 맞물리고 있는 지점에서 춘향의 기녀가 아니라는 운명을 건 외침 속에 새 시대를 향한 도전의 의미가 도사리고 있음을 짚어보고자 한다.

| 제12강 |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흔적



박구병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2000년 미국 UCLA 사학과 Ph. D.
-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한국서양사학회 편집위원장 역임
- 연구 분야: 19-20세기 라틴아메리카, 서양근현대사
- 저서: 『세계화 시대의 서양현대사』(공저)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공저) 등
- 역서: 『변화하는 라틴아메리카』, 『근대세계체제 IV』 등

한반도의 지리적 대척점에 위치한 라틴아메리카의 20세기는 흔히 '혁명의 세기'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혁명이라는 표현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전의 관행이나 제도, 방식 등을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는 일로 그 용례가 확대되었지만, 전통적으로 그것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체(正體)를 변혁하는 일"을 의미했다. 이 강의에서는 20세기 초중반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멕시코, 쿠바)에서 발생한 혁명을 정치·경제·사회적 도전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엿보이는 한인 이주민들의 흔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낯설게만 보이는 먼 지역의 큰 변화가 20세기 세계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아울러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고달픈 도전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정리해볼 것이다.

| 제13강 | 재미있게 살다가 의미있게 죽자



주철환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MBC PD 1983 ~ 2000
-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2000 ~ 2007
- OBS 경인TV 사장 2007 ~ 2009
- JTBC 본부장 2009 ~ 2013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2016 ~ 2018

인생 2막, 혹은 인생 후반전보다는 인생 2모작의 삶을 권한다. 무대에서 주목받는 삶이나 싸움에서 이기는 삶도 나쁘지 않지만 꾸준히 자신을 가꾸고 누군가를 키우는 농부의 지혜도 소중하다.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고 지혜를 경작하면 인생의 겨울이 따뜻해진다. 학교와 방송사를 오가며 겪은 40년 직장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좌우명처럼 '재미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죽자'고 조언한다.

봄학기

강좌	날짜	구분	강의 주제	강사
제1강	4월 13(월)	입학식		
		개강 특강	갈등 해소 언어 - 인지과학적 접근	박만규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제2강	4월 20(월)	일반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위기 극복의 상상력	진형준 (前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제3강	4월 27(월)	일반	도전과 비전 - 성공하는 실패를 위하여	심영섭 (한국 영상 응용 연구소 대표)
제4강	5월 4(월)	고전	조선 영조 ~ 순조대의 궁중 연향문화	김영운 (국악방송 사장)
제5강	5월 11(월)	예술	뛰어난 전문가 vs. 평범한 전문가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6강	5월 18(월)	예술	역사적으로 본 韓中日 삼국지	한명기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7강	5월 25(월)	일반	조선의 건국과 정도전의 “도전”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8강	6월 1(월)	일반	판결과 정의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9강	6월 8(월)	일반	Self-Awareness의 이해와 활용	이성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제10강	6월 15(월)	일반	한국 건축의 두 저수지 - 불교와 유교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제11강	6월 22(월)	일반	나는 기생이 아니다 - 운명을 건 춘향의 외침 -	조광국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2강	6월 29(월)	고전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흔적	박구병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13강	7월 6(월)	종강 특강	재미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죽자	주철환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수료식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입학식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수료식





HELLO SPRING

같이하는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아인회가 있어
행복합니다

아인회
문화기행



특별혜택

아주대학교의료원 진료비 감면	진찰료 : 20% 감면
	진료비 : 10% 감면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	본 과정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소지 시,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 가능

입학요강

교육일정	• 교육기간 : 2020년 4월 13일(월) - 2020년 7월 6일(월) • 강의일 : 매주 월요일 (매 학기 13주강의) • 강의시간 : 18:00 - 20:00 (2시간) • 강의 장소 : 아주대학교 연암관 1003호
모집인원	30명
지원자격	• 공·사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벤처 기업인 • 행정, 입법, 사법부 등 정부 인사 및 책임자 • 금융, 문화예술, 법조, 언론, 의료, 체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사,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
수강료	• 금액 : 3,000,000원 / 봄 학기, 가을학기 각각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92090-29-000811 (예금주 :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12월 16일(월) - 2020년 4월 3일(금)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명함판 사진(4x5size, 컬러사진) 1매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지원양식 다운로드 및 원서 작성 후, 이메일(jaeukim@ajou.ac.kr) 송부 ※ 홈페이지(http://human.ajou.ac.kr/human) 접속 →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입학원서 다운로드 • 우편접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다산관 217호, 인문대학교학팀 • 방문접수 : 아주대학교 인문대학교학팀 (다산관 217호)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문의처	• 전화 : 031-219-3699 • 홈페이지 : http://human.ajou.ac.kr/human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고찰하는 과정은 자신을 성찰하고 가다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제13기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도전의 인문학



아주대학교 | **인문대학**
AJOU UNIVERSITY | College of Humanities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다산관 217호
T. 031-219-3699 F. 031-219-1617